

월/요/광/장

민혜숙



인간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뜻을 전할 수 있다.

그 전에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몸짓언어로 웬만한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자의 도움이 컸다.

다일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포스코와 사람의 열매에서 후원하는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BCP/Beautiful Change Project)'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양립교회를 중심으로 26명의 의료봉사단이 베트남으로 향했다.

필리핀에서 소위 '안쟁이'라고 하는 구순구개열 환자 30여명의 수술을 집도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거울 속에 비친 아름답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동행했다.

언어가 달라도 정(情)은 통한다

나라의 경제성장은 베트남 전쟁과 중동 건설이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이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비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베트남에 빚지고 있다.

나라의 경제성장은 베트남 전쟁과 중동 건설이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쟁 당시 전쟁고아 보육원이던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 아직도 남아 있다.

조금이나마 빛을 갚는 심정으로 베트남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얼굴 아래 손가락을 꽃처럼 펼쳐며 환하게 웃었다.

각 일정마다 돕는 손길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다툰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관리를 해주었다.

도 중심은 서로 잘 통했다.

아이를 대원들을 보며 감동했다.

다. 말하지 않아도 고맙다는 뜻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남는 환자를 진료했다.

개업자들이 병원 문을 닫고, 가족과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쁜 대학병원 의사사 급싸라기 같은 휴가를 베트남 의료봉사에 사용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 라인' 수용해야

과다 논란이 뜨거웠던 지방의회의 의정비 문제가 타율에 의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의정비가 자치정신에 입각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는 지방의회의 수모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정비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만원(고흥군의회)에서 최고 949만원(광양시의회)까지 깎이게 됐다.

심각 대상에 오른 일부에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난해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시민단체와 주민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는 지방의회의 수모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정비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주택대출금리 급등 서민가계 걱정이다

금용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이 심상치 않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올해 18조2천억원, 내년에는 37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고금리에 따른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은행권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올해 18조2천억원, 내년에는 37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올해 18조2천억원, 내년에는 37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無 等 鼓

전쟁은 보통사람들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계오르규의 소설 '25시'는 전쟁의 수렁이 휘말린 인간의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레나테 흥

나 지오반니(소피아 로렌)의 남편은 어디에도 없다.

전쟁은 보통사람들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레나테 흥

나 지오반니(소피아 로렌)의 남편은 어디에도 없다.

레나테 흥

법조 칼럼

이광민



무렵과 폭풍 켜는 더위로 인해 법정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 소식을 접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

우리의 최고인, 수명의 박태환, 양궁의 나·나 삼총사 등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할 때 마다 온 국민은 모두 자신이 금메달을 딴 것처럼 즐거운 환성을 질렀고, 나도 오랜만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잊고 지냈던 애국심과 자긍심이 가슴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수사를 하면서 가끔 어렵게 느끼는 점은 사건 관계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남을 바라보며 비난할 뿐 역사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수들이 앞으로 계속 선전해 어렵고 힘들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기고

이석형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다툰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다툰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다툰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레를 견학했다.

다테시는 1990년대부터 건강복지형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헬스랜드' 구상을 수립해 정년퇴직자 유치를 나서고 있다.

레를 견학했다.

가깝고도 먼 일본 어떻게 할 것인가

고 있는 중국은 매의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서해 어업 분쟁, 백두산 국경 분쟁 등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4일간의 일정으로 함평군 농업, 도시계획,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공직자와 의회 의원, 마을 리더 등 연수단을 이끌고 일본 북해도를 다녀왔다.

일본은 여전히 침략주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 연수단은 북해도의 비에이쵸와 후라노시의 경관농업, 다테시의 노인복지 시스템과 중심시까지 정책, 아사이 카와시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혁신사

들과 장애인들의 교통서비스인 '라이프 모빌리티 서비스'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콤팩트 시티'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일본은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번 연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군정에 접목해 나비고를 함평이 최상의 복지왕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지역으로 거듭나는 등 창조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군정에 접목해 나비고를 함평이 최상의 복지왕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지역으로 거듭나는 등 창조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림픽이 주는 선물

는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많이 갖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자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 축하해 주는 것 못지않게 4년 동안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숭한 평방울을 흘린 노력에도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과 함께 '괜찮아!'라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름답, 좌절, 쓸쓸함을 딛고 외산상담하여 다시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면 피해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응서를 구하고 싶지만 합의할 돈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욕만 더 먹을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찾아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여 승자에게는 진정된 축하를, 패자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본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먹거리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보상이 높을 수밖에 없다.

▲김집숙·광주시 복지 홍보팀

먹거리 불량제품 보상기준 강화해 재발 막아야

최근 과거와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대부분 항의한다.

그렇다면 업체에 항의하기보다 소비자보호 등 정부 기관에 신고해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아야 할텐데 현행 법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먹거리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보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먹거리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보상이 높을 수밖에 없다.

▲김집숙·광주시 복지 홍보팀

청년 척추결핵 환자 급증... 규칙적 식사·운동 필요

결핵은 가난했던 시절의 질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30세 이하 성인 척추결핵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결핵균은 보통 폐에 병을 일으키지만, 혈액을 타고 소장이나 중장, 척추 등을 침범해 결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결핵균은 보통 폐에 병을 일으키지만, 혈액을 타고 소장이나 중장, 척추 등을 침범해 결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결핵균은 보통 폐에 병을 일으키지만, 혈액을 타고 소장이나 중장, 척추 등을 침범해 결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Hwang Joo-yeop, Kim Jeon-yeop, Kim Dong-yeop, Kim Hong-yeop,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